■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주제: 제목 :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습니까? 성경: 요한복음 3장 1-21절

1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2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3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4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5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7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8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9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10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11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12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13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14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15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8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19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20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21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요3:1-21)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백성의 지도자요, 산헤드린 회원이었다. 그는 유력한 사람이었고, 또한 올곧은 사람이었고 진실하고 책임감이 강하고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것은 해가 되더라도 행하는 사람이었다. (당시로서는 흠잡을만한 데가 없는 훌륭한 사람이었다.)

니고데모는 정중하고 겸손하였으며, 탐구심이 강하여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하였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매우 중요하고 핵심적인 말씀들을 많이 하셨다. 우리로서는 니고데모가 고마울 따름이다.

-우선 우리는 니고데모의 태도를 귀하여 여기며 본받아야 한다.

-그는 다른 바리새인들처럼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묻지 않았다.

-그는 공격의 빌미를 찾기 위해서, 또는 망신주기 위해서, 고발할 근거를 찾기 위해서, 따지기 위해서, 비난하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얻기 위해서 유도하는 질문을 하지 않았다. 그는 순전하게 진리를 향한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은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진리를 계시하셨다.

2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가 예수님께 온 이유는 예수님의 하시는 일과 그 표적을 보고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자라면 그는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이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런 판단은 참으로 진실하고 정확한 판단이다. 산헤드린으로써 그런 판단을 하고, 겉으로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자기 입으로 말하고 행동으로 자기의 소신을 나타내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대단히 정직하고 바람직하며 진실한 자라는 것을 나타낸다.

3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지난주까지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간략하게 표현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는 자들은? 결국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은? 오직 거듭난 사람들이다.

-거듭난다는 말은 두 번 태어난다는 뜻.

-그런데 히브리어에서는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뜻도 있다.

-당시 유대인들도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으로 개종하는 자들은 위로부터, 즉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그런데 이 표현을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유대인에게는 사용하지 않는데, 그것도 바리새인에게 사용하였으니 당황하였을 것이다.

-거듭난다는 것은 곧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뜻.

-몸이 태어나는 것과는 달리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뜻. 그래서 거듭나는 것인데, 정확하게는 성령으로 그 영이 다시 태어난다는 뜻.

-태어난다는 말은 살아난다는 표현도 가능하다. 왜냐면 영이란 그 존재 특성상 죽는다고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다시 살아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즉 성령이 오시면 그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난다는 뜻. 그것을 거듭난다

고 표현한다.

–그런데 성령으로 그 영이 살아나게 되면,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뜻.

5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남에 대해서 니고데모가 깜짝 놀라자, 예수님은 다시 한번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설명해 주셨다.

–즉 성령께서 누구에게 임하시면서 사람의 영이 다시 살아나는가? 그것은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물로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다.

–그것은 세례라는 기계적이고 예식적인 행위가 성령을 불러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의 진정성, 즉 죄를 회개하고 그 죄에서 자신을 돌이키는 것을 통해서 성령을 받는다.

–또 먼저 세례받고 다음에 성령받는 순서도 크게 중요하지 않다. 성령께서 임하시지 않으면 죄를 깨우치기도 힘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스스로 뉘우치는 것도 중요하며, 성령의 감동에 마음의 문을 스스로 열고 회개를 결단하는 것도 중요하다.

–다만, 주인이 성령이시며 나는 종임을 명심해야 한다. 거듭남의 주권은 성령에게 있지, 내가 성령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면서 성령받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성령을 받기 위한 자기 주도적 열정보다는 갈망, 배고픔, 간구함, 간절함, 기다림, 겸손함 등이 핵심적인 가치가 된다.

8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예수님은 성령의 주권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바람을 예로 들었다.

–‘바람’이라는 히브리어는 ‘성령’이라는 말과 같은 단어를 사용한다.

–따라서 ‘성령’에 대한 이해는 ‘바람’을 이해하는 것과 연관이 있다.

–바람은 어디서 어떻게 시작하고 어디로 불어가는지 알 길이 없는데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

–그러나 그 소리는 들을 수 있다. 즉, 전혀 아무런 증상도 없지는 않다.

-바람이 임의로 불 듯이, 성령도 임의로 즉 성령의 주권으로 임하신다는 뜻. 이 말의 뜻은 그러므로 성령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또는 성령님 앞에) 기계적으로 서 있기 보다는 인격적으로 서 있어야 한다는 뜻.

-물론 성령을 받으면 몸이 뜨거워진다든지, 진동이 온다든지,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바람도 소리는 들을 수 있다.) 그러나 성령이 불이거나, 에너지이거나 하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모든 위와 같은 증상이 오면 성령이 임하는 것인가? 아니다. 영은 분별해야 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만 성령이다.

13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14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15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인자라는 표현은 구약성경 에스겔서에서 90여회, 다니엘에서 3회 나온다.(시편 등 기타 약10여회) 신약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인자'라고 표현하셨다(4복음서에 약 90여회).

-예수님이 밝히 말씀하신대로 인자(Son of Man)란 '사람의 몸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온 자'를 뜻한다.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때의 (초림) 신분은 사람의 대표로 오셨기 때문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이지만, 사람의 대표로서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특별 임무를 띠고 내려온 자'라는 특수한 의미로 사용되었다. 즉,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외에는 천국에 대해서 가르칠 자가 없다. 또 그가 다시 하늘에 올라가는데, 오직 그를 믿는 자마다 천국에 간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듬.(민21:4-9)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이 험하기 때문에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 이 때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서 사람들을 물게하고 물린 사람들은 고통중에 죽어가게 된다.

-사람들은 모세에게 와서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한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은 불뱀 형상의 놋뱀을 만들어 장대 끝

에 매달라고 하고 누구든지 뱀에 물린 사람은 이 놋뱀을 쳐다보게 하였다. 쳐다본 사람들은 모두 나았다.

-원망이란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통치를 받아들이면서도 마음 속으로는 그의 통치에 대해서 불만하며 악평하며 급기야는 반역의 핑계로 삼으려는 것을 말한다.

-원망보다는 호소와 간구가 낫고, 힘겨워 지쳐 쓰러져 신음하는 것이 낫고, 그 보다는 힘을 내어 찬송하면서 험준한 길을 걷는 것이 낫다.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를 기억하면서.

-원망은 하나님의 통치를 향한 악한 마음을 품는 것이기 때문에 사악하며, 마귀적인 것이다. 원망은 불뱀의 횡포를 부른다. 원망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소멸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해결책을 주셨고, 그 해결책이 매우 엉뚱하다. 만약 사려깊고, 이성적이며, 과학적이며, 까칠한 사람이었다면 그 마저도 내팽개치고 순종하지 않았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에 순종하였고,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은 불뱀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의 원망에 대해서 회개할 것을 요구하셨고, 회개하며 순종하는 자들마다 병이 낫게 하셨다.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볼 때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할 것을 추억하게 되며, 회개하며 용서를 간구하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광야의 놋뱀 이야기를 꺼내신 이유는 니고데모로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성령에 관련된 이야기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하고 있어서였다.

-사람들은 불합리하다고 여기고, 불공평하다고 여기고, 불의하다고 여기는 경향이 강하다. 자기가 손해를 보고 있다고 여긴다. 지도자가 우리를 엉뚱한 길로 인도하고 있다고 여긴다. 어떤 사람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으며, 어처구니 없게 우리가 고생하고 있다고 여긴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원망하고, 비아냥거리고, 비판하고, 그 통치를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 결과는? 불뱀에 물려 고통당하는 것이 그 결과다.

-사람마다 불뱀에 물려 고통당하고 있다. 오늘도 똑같다.

-그러나 해답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자.

> 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
> 17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은 불뱀에 물려 고통당하고 있는 현재 우리에게 가장 절박한 것이다.

-하나님은 현재 우리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분이라는 뜻.

-그분은 하나님의 외아들, 다른 아들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는 외아들을 지니신 한분 하나님의 아들, 다른 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분을 믿어야 한다는 뜻.

<찬양예배>

주제:　　제목:　　말씀: